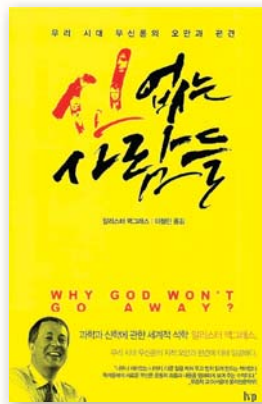


신 없는 사람들 : 우리 시대 무신론의 오만과 편견

박희주 (명지대 교수)



알리스터 맥그래스 저 | 이철민 옮김 | MP

이 책은 '새로운 무신론'으로 알려진 최근의 반종교적 흐름에 대한 한 신학자의 답변이다. '새로운 무신론'이란 용어는 2006년 처음 사용되었는데 당시 서구에서 무신론을 전파하는 대중서로 큰 인기를 얻었던 세 권의 저서를 통칭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2004년 샘 해리스의 『종교의 종말』, 2006년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 그리고 2006년 대니얼 데닛의 『주문을 깨다』이다. 여기에 더해 크리스토퍼 히친스의 『신은 위대하지 않다』가 무신론 분야의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이들 '네 명의 기수'는 종교논쟁에서 유명인사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이 책들 중 『만들어진 신』은 국내에도 번역 소개되어 돌풍을 일으켰다. 저자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로

이미 국내에 충실한 독자층을 둔 이 시대의 대표적 진화론자이다. 사실 도킨스 외에는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들은 서구의 종교논쟁에서 2000년 이후의 최신 흐름을 대표하는 저자들이고 '새로운 무신론'으로 묶을 수 있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새로운 무신론의 특성, 내용, 이에 대한 분석은 날로 거세지는 국내의 반기독교적 정서를 감안할 때 국내 기독교계에도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된다.

이 책의 저자 맥그래스는 국내에도 잘 알려진 영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학자이다. 신학을 전공하기 전에 분자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얻은 맥그래스의 이력은 새로운 무신론의 큰 특징이기도한 소위 '과학적' 비판에 대응하는데 매우 적절하다. 맥그래



스는 먼저 새로운 무신론이 과연 '새로운지' 새롭다면 어떻게 새로운지 질문을 던진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존의 무신론에 비해 내용면에서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으나(오히려 지적 엄밀성은 퇴보) 스타일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과거의 무신론은 본질적으로 반유신론이 아니었으나 새로운 무신론은 호전적 반유신론을 모토로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과거의 무신론은 영성에도 깊은 관심을 가진 경우도 있고, 유신론이 오류라고는 생각하지만 유신론자들에게 대해 특별한 반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새로운 무신론은 이 점에서 다르다. 새로운 무신론의 호전성은 샘 해리스나 리처드 도킨스의 경우 두드러진다. 해리스는 9/11사태의 원인으로 이슬람 나아가 종교 전체를 매도하고 있으며, 심지어 “너무나 위험한 나머지 그것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게 도리어 윤리적인 명제도 있다”와 같은 극단적인 주장을 하기도 했다. 도킨스는 종교를 이 세상 모든 악의 근원으로 파악하고 제거해야만할 대상으로 간주한다.



이 책은 전체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새로운 무신론의 정체, 2부는 새로운 무신론의 주장들, 3부는 새로운 무신론의 미래이다. 이 책의 핵심은 2부에 있다. 새로운 무신론의 핵심주장 세 가지를 다루는데 첫째, “종교는 폭력적이다” 둘째, “종교는 비이성적이다” 셋째, “종교는 비과학적이다”가 그것이다. 먼저 과연 종교는 폭력적인가? 맥그래스는 우선 종교에 이런 혐의를 씌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종교인지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역사학자 마틴 마틴은 종교의 특징 다섯 가지(궁극적 관심, 공동체 수립, 신화와 상징에의 호소, 제의와 예식, 추종자에게 특정행동을 요구)를 열거하며 이는 동시에 정치운동의 특성이기도 함을 지적한다. 종교광신자가 있듯이 정치광신자도 있을 수 있으며(한국사회에서도 정치적 신념을 위해 분신자살하는 경우를 종종 목도한다), 문제는 광신이지 종교나 정치 자체

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새로운 무신론의 기수 해리스와 히친스는 종교적 신념은 곧장 자살 테러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맥그래스는 종교와 폭력과의 관계에 대한 최근 연구들을 인용하며 오히려 연구 결과는 반대방향을 가리킴을 지적한다. 예컨대 시카고대학 정치학 교수 로버트 페이프의 자살 폭탄 테러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종교적 신념은 자살 폭탄 테러를 만들어내는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며 오히려 근본동기가 ‘정치적’이었다는 것이다. 종교도 광신을 만들지만 정치와 이데올로기도 광신을 생산하며, 정치적 광신이 위험하다고 해서 정치 자체를 부정할 수 없듯이 종교도 그러할 것이다. 다만 문제는 광신이며 광신은 건전한 종교와 정치로부터 분리해서 치유해야할 것이다.

종교는 비이성적이다. 이 주장에 대해 맥그래스는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한다. 첫째는 새로운 무신론이 의지하는 이성 만능주의의 문제, 둘째는 종교적 합리성이다. 이성은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듯 궁극적 실재를 정의하는 잣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성의 한계에 대해서는 많은 철학 논쟁들이 있어왔고 맥그래스는 칸트와 흄을 인용한다. 이들은 이성이 비합리적인 것을 비판하는 기능을 갖지만 이성만이 실재를 바르게 포착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세상에는 이성에 의해 입증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다수가 옳다고 공유하는 신념들이 있음을 지적한다. 예컨대 국제연합의 “기본 인권에 대한 헌법”에 나타난 만인의 생래적 자유, 존엄성, 권리는 논리나 과학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시민사회 전반이 받아들이는 가치이다. 이성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잣대는 아니며 맥그래스는 이성은 종교를 부인할 수 있는 궁극적인 잣대가 될 수 없다고 본다. 그는 절대적 이성의 존재에 대한 회의에서 나아가 상대적 이성 혹은 다수의 타당한 합리성 개념을 도입한다. 예컨대 유신론과 무신론은 서로가 각각의 전제 위에서 내부적으로 정합적인 체계를 이루지만 자신의 옳음이나 상대의 틀림을 절대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두 체계는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나름의 타당한 합리성을 갖고 있으며 종교의 합리성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끝으로 종교는 비과학적이다. 과학을 인용해 종교를 부정하는 것은 새로운 무신론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도킨스가 대표적이다. 맥그래스는 앞서 이성의 한계를 지적했듯 여기서는 과학의 한계를 지적한다. 과학은 본질적으로 ‘관찰 가능한’ 것에 대한 설명인데 이 세상에는 관찰 가능하

지 않지만 인간의 삶에 필수불가결한 것이 있다. 예컨대 가치와 의미이다. 도킨스조차도 “과학은 무엇이 윤리적인지 결정할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음을 맥그래스는 지적한다. 종교는 “신의 존재, 삶의 의미와 가치의 본질” 같은 과학의 영역 너머에 있는 질문을 다루며 이런 의미에서 종교는 비과학적이라기보다는 과학과는 다른 어떤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과학은 유신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빅뱅 우주론은 우주에 시작점이 있다는 창세기의 내용과 잘 조응한다는 주장이나, 우주가 생명과 인간의 탄생에 적합하도록 수많은 우주상수들이 기가 막히게 ‘조율’되었다고 하는 소위 ‘인류원리’가 그것이다. 이들은 무신론은 현대과학의 결론이며 유신론은 과학적 세계관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새로운 무신론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과학에는 오히려 신의 존재를 지지하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가 있음을 지적한다. 무신론이 ‘과학적’이라면 유신론도 동일한 차원에서 마찬가지로 ‘과학적’임을 이들은 주장한다.

이 책은 206쪽에 불과한 가벼운 책이지만 내용은 가볍지 않다. 이 책을 읽는 독자는 이 책이 새로운 무신론의 호전적 공격에 대한 권위 있는, 설득력 있는 답변임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특히 답변의 배경에 깔려있는 맥그래스의 학문의 폭에 놀라게 되는데 철학, 신학, 과학, 정치사상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정보는 맥그래스 저술의 특징이자 유용함이다. 번역도 유려하고 정교하다. 일독을 권한다.



박희주 현재 명지대학교 기초교육대학 과학사 교수이다. 서울대, 전북대 과학문화연구소 박사후 연구원, 영산대 교양학부 초빙교수이다. 저서로는 『생명과학과 우주에 대한 과학과 종교논쟁, 최근 50년』(2008, 해문서관) 등이 있다.